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

이윤주(李玟姪)**

지연정(池妍貞)***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어, 먼저 초등학교 5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수준을 검사하여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차이를 하위척도별로 살펴보고, 둘째,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통해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경험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 반복적 비교분석법에 의한 분석과 해석의 절차를 거쳐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습성격유형별로 학습몰입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규범탐구형은 학습몰입의 하위요인 중 명확한 목표요인에서, 행동규범이상형은 구체적 피드백요인, 통제감요인, 행위와 의식의 통합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는 몰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아동의 몰입경험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들은 학습몰입에서 즐거움, 행복함, 성취감을 느꼈으며 부모나 교사, 또래관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 몰입하였다. 넷째, 아동들은 학교에서 몰입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아동들은 대부분의 활동에서 칭찬과 보상이 주어진 활동에서 더 많은 몰입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아동들은 신체적 활동과 흥미와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을 때 몰입을 경험하였다. 여섯째, 몰입을 인식할 때 더 몰입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몰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더 잘 몰입함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12년 지연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그 어느 나라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관련 활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 받는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초등학교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업과 관련된 과외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듯 초등학교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습활동에서 시험불안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학습흥미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는 의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시사점을 창의적으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작업의 즐거움'이다(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김창대, 2002에서 재인용). 이들은 자신의 작업을 즐기는 것과 열심히 수련하는 것을 거듭하면서 점차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즉, 일에 몰입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과 유능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기술과 능력이 도전 및 과제의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최적의 경험상태 즉,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과 행복은 '몰입(flow)'으로 정의된다(Csikszentmihalyi, 2004).

Csikszentmihalyi가 몰입을 처음 소개한 이후로 몰입 이론은 스포츠, 여가 활동, 경영,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되었다(석임복, 2007). 학습에 있어서도 몰입 경험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학습몰입의 경험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creativity), 즐거움(enjoyment), 최고수준의 학습경험(peak experience), 능력개발(talent develop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등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친다(Csikszentmihalyi, 1993; 최인수 역, 2004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로 몰입경험이 학습시간의 단축이나 학업성취수준의 향상 등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재동, 2004; 이미현, 2003). 또한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학습과정은 즐겁게 느껴지고,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 자긍심이 높아지고,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김연경, 박성익, 2006; 이우미, 2004; 이은주, 2001;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Hoffman & Novak, 1996; Kimmel & Skadberg, 2004). 몰입의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최근 아동들의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학습변인과 연계하여 몰입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강명희, 박성희, 송윤희, 2008; Csikszentmihalyi & Hektner, 1996; Goldbacher, Green, Miller & Philip, Schwartz, Waterman, 2003; Sullivan, 2004).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업성취도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 상황에서 각각의 기질과 성격이 다른 만큼 그 기질과 성격에 따라 흥미 있는 과목이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과제, 효과적인 학습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화와 획일화된 교육 방식보다는 학습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양식과 흥미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적절하고 정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일상을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들과 모두 관련되어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따라서 각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능력을 발휘할 행동기회를 제공하며 학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특히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이 다가갈 기회가 감소되며 따라서 학습몰입은 발휘될 수 없다. 즉,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구조화된 학습 환경과 학습활동은 학습몰입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자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경험의 조직화가 더 쉽게 달성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성격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독특한 양식(Guilford, 1959)으로 그 사람의 행동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총체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성격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무엇을 학습하는지 개인차를 나타내준다(Lathey, 1991; Schurr & Ruble, 1986). Lawrence(1984)는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양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Myers(1985)는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 성격유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학업성취를 위하여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 및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일차적으로 그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방식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시킨다면 학업성취에 보다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Heacox,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학습성격유형은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성격적인 요인을 진단할 수 있는 U&I(Uprise and Improve, '자기 이해를 통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학습성격유형검사로 학습심리와 관련된 성격에 따라 학습 시 개개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다.

한편,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적 특성과 태도, 신념 등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수업과 학습을 위해서는 수업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습자로 옮겨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자율적 학습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초점을 맞춘 학습몰입경험이 학습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몰입은 그 특성상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기도 하지만(Sternberg & Davidson, 1995; 이은주, 2001에서 재인용) 학습에서 몰입을 더 잘 경험하고자 한다면 몰입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몰입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몰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몰입이 발생되도록 일련의 조건들이 구조화되어야 한다(Csikszentmihalyi, 1990). 여러 연구들이 어린 시절 경험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몰입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자극을 가하고 관심을 키워주는 내부의 의욕에서 비롯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자꾸만 주어야 한다. 즉 초등학생들이 어딘가에 집중하는 열정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습관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활동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적 특성과 흥미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으로 몰입경험의 기회를 늘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초등학교 아동들의 몰입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업성취와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몰입 현상을 보다 생생하게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기는 성격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나 질문지를 통한 검사방법과 연구 참여자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경험과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주관적 몰입이란 어떤 것이며 학생들의 몰입경험과 관련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하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습몰입과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맞는 수업방법과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과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 및 실천, 그리고 초등학생의 적절한 학업상담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1.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습몰입도는 차이가 있는가?
2. 초등학생의 몰입행동 특성은 무엇인가?
 - 2-1. 초등학생이 느끼는 몰입의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 2-2.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별 몰입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성격유형

학습유형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Brown, 1998), 이를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하면 학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 학습습관, 학습요령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학습자의 특성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개인 나름대로 지식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임창재, 1994). Kirmsky(1982), Luych(1981), Pizzo(1981), Weinberg(1983), Wheeler(1980)은 학습유형이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변인을 연구하면서 학습지도의 방법을 학습자의 선호에 맞도록 하면 학업성취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상의 문제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 방식이나 선호하는 교수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발생한다(Keirsey 외, 1978).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학습성격유형은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심리적으로 구분한 학습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학생이 학습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및 태도를 진단하는 부분과 Keirsey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 양상을 알아보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학습행동 검사로서 학업과 관련된 학습자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6개의 하위 척도(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골수형)로 나뉜다. 두 번째 영역은 학습성격유형 검사로서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나 교수 방식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4개의 하위 척도로 나뉜다. 하위 척도 4가지로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기본 학습성격유형과 이것들을 조합한 10가지의 학습성격유형을 합하여 총 14가지의 학습성격유형으로 조합 분류하였다(김만권, 한종철, 2001).

김만권, 이은정(2003)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흥미에서 학생의 학습성격유형을 1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진로성숙도와 진로흥미를 살펴본 결과, 학습성격유형의 특성에 따라 진로흥미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몰입 정도를 알아본 연구(이소희, 2006)에서는 외향적(E)인 남학생보다 내향적(I)인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의 몰입도가 높으며, 여자의 경우 내향적(I)인 여학생보다 외향적(E)인 여학생이 인터넷 게임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성(2010)은 중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의 순서로 학업성취도 점수를 잘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습태도, 수학적 자기 효능감, 수학활동 지속 능력 기대, 수학활동수행 능력 기대에서 모든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정은진, 2009)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황운구(2007)는 학습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학습 성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간에 수학학습방법과 문제풀이과정에서 그 특징과 차이점을 발견하였으며, 수학 학업 성취도는 학습성격유형 간에 탐구형과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탐구형과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경아의 5명(2004)이 학습성격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중 규범형은 학습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며, 학습동기 및 학업성적이 높은 반면, 이상형은 이들 학업성취 관련 변인 점수가 낮아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관련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학습성격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학습성격유형이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업성취와 학습효과를 높여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가정 하에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습성격유형이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히고자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 상관관계와 학습몰입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학습몰입(Learning Flow)

몰입이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폭 빠져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주변상황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그 일에 완전히 흡수되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1975년 Csikszentmihalyi의 'Beyond Boredom and Anxiety'라는 문헌을 통해 처음 언급되었다.

Csikszentmihalyi(1975)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나, 물 흐르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의미로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몰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개념은 바로 '절정경험(정상경험; peak experience)'이다. 절정경험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 특별히 즐겁고 흥분된 순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다. Csikszentmihalyi(1975, 1997)는 몰입경험에서 일어나는 아홉 가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도전과 능력의 조화(challenge-skill balance) :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실행 가능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기가 수월해진다(Csikszentmihalyi, 2006).
- ②행위와 의식의 통합(action-awareness merge) : 몰입 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학습 활동과 인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자발적으로 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김진호, 2002).
- ③명확한 목표(clear goal) : 분명한 목표를 미리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2006).
- ④구체적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 :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몰입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순간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수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 ⑤과제에 대한 집중(concentration on the task) : 몰입 상태에서의 강력한 집중력은 외부의 사소한 자극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Csikszentmihalyi, 2006).
- ⑥통제감(sensc of control) : Csikszentmihalyi(2006)는 통제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 ⑦자의식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 몰입 상태에 빠지면 자신의 문제와 주변 환경은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강력한 주의집중에서 나오는 결과이다(Csikszentmihalyi, 2006).
- ⑧시간 감각의 왜곡(transformation of time) :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면한 과제의 활동에 맞추어 시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 감각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다(Csikszentmihalyi, 2006).
- ⑨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 : 최적 경험의 핵심 요소는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단순히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보상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2006). Mayers(1978)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적성이나 태도보다 수업에서의 몰입 경험의 정도가 학생들의 성적을 더욱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Massimini와 Carli(1988)는 몰입 경험이 높은 학생들이 몰입 경험을 더 적게 보고한 학생들보다 공부할 때 주관적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도전과 지원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에 대한 태도, 친구들에 대한 태도, 안정감, 학교에 대한 일체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은주(200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몰입에 대한 학습 동기와 인지전략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내재적 동기 및 자율적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심층적 인지 전략 및 초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익과 김연경(2006)은 학습몰입 요인들과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는데, 학습몰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동기이고, 학습자의 몰입수준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계보경(2007)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Presence), 학습몰입(Flow), 학습효과의 관계규명을 통해 증강현실기반 학습에서 매체활용의 효과성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의 몰입이 만족도, 지식이해, 적용 측면의 학습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임현화(2010)는 수업에 몰입

하는 아동의 경험과 교사의 수업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몰입행동으로는 ‘주의집중’, ‘적극적 행동’, ‘상호작용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석임복(2007)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내재적 동기성향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몰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율적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성향 두 가지가 인지적 영역의 학습 몰입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업성취도에는 학습동기 보다 학습몰입이 좀 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혜영 등(2004)은 초등학교 아동이 수업에 몰입하는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업내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수업방법이 신체적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활동성’을 나타낼 때, 수업내용과 방법에서 아동이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내리는 ‘주도성’이 있을 때, 그리고 수업내용과 방법이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의 특징을 나타낼 때 아동은 수업에 몰입하였다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와 몰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자 각각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54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수준을 검사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7명의 자료가 통계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습성격유형 검사 결과에서 도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승인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몰입경험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을 통해 직접 수집할 경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포커스 그룹인터뷰의 참여자 현황은 A그룹, B그룹, C그룹 총 24명으로 각 유형별 1~3명씩 구성되어 자료를 수집했다. 면담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각 유형별 1~2명씩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표 1>은 학습성격유형별 분포를 나타낸다. 총 117명의 분석 대상 중 행동규범이상형(32.5%), 행동규범형(11.1%), 규범타구이상형(10.3%)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표 1> 학습성격유형별 분포

학습성격유형	N	%
행동형	7	6.0
규범형	8	6.8
탐구형	1	0.9
이상형	7	6.0
행동규범형	13	11.1
행동탐구형	0	0.0
행동이상형	3	2.6
규범탐구형	3	2.6
규범이상형	8	6.8
탐구이상형	0	0.0
행동규범탐구형	7	6.0
행동규범이상형	38	32.5
행동탐구이상형	10	8.5
규범탐구이상형	12	10.3
합계	117	100.0

2.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1) U&I 학습성격유형검사

본 연구를 위해서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로 실시하였으며,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학습성격을 분류하는 52문항과 학습행동을 분류하는 54문항 그리고 학습전략 58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64문항인 검사이다. 학습성격유형은 학습과 관련된 성격 유형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으로 4가지 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행동형 0.70, 규범형 0.68, 탐구형 0.63, 이상형 0.64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강경미, 2003).

2) 학습몰입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석임복과 강이철(2007)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수는 35문항이며 각 하위 변인별로는 도전과 능력의 조화 4문항, 행위와 의식의 통합 5문항, 명확한 목표 2문항, 구체적인 피드백 5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 3문항, 통제감 2문항, 자의식의 상실 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6문항이다. Likert 5단계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변인별 문항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58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범위는 .710~.863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와 개인 심층면담

Morgan(1997)는 포커스그룹이란 “어떤 집단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이 없다면 얻기 어려운 데이터와 통찰력을 생성하는 집단 상호작용의 명확한 활용이다.” 또한 포커스 그룹은 목적, 규모, 구성, 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그룹이며(김성재 외, 2000),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가 활성화되고, 언어적 표현이 자극되고, 주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Krueger, 1998; Morgan, 1995).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몰입경험의 느낌, 생각, 주변 환경 등을 또래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되고 풍부한 자료를 얻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개인 심층면담은 포커스 그룹인터뷰 과정에서 또래들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1) 양적 분석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19.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처리하였다.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 질적 분석

본 연구의 질적 접근의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으로서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Glaser &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자료의 분석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그 후의 연구자들이 질적 자료

를 분석할 때 이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만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Ezzy, 2002).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코딩은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의 녹취 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수집된 자료의 특정 부분이 연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과 진술한 내용 중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나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해내었다. 그리고 1차 코딩에서 만들어진 임시적 범주체계에 따라 다시금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2차 코딩의 사전작업을 준비하였다. 범주화는 1차 코딩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에 대해 2차 코딩의 과정에서 새롭게 삭제되거나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범주체계로 변화되었다. 개방 코딩 전단계의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구성된 범주가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범주를 확정하게 되고, 원래 자료에 비추어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범주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범주를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자료를 새롭게 발견해 재수정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통합적인 설명을 위해서 일반화된 문장으로 각각 기술하였으며, 이렇게 기술된 내용을 통합하여 글쓰기로 진술하여 분석단계를 마치게 되었다.

3)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주관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다양한 객관화와 타당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Denzin(1970)이 질적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연구대상학교의 연구교사로서 자료 수집 전 과정에 참석한 교사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member check), 동료 검증(peer examination)을 실시하였다. 첫째,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은 한 가지 자료 수집에서 오는 자료의 편협함과 해석상의 왜곡을 줄이고 각각의 자료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타당하고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본 연구를 승인한 연구교사로부터 연구자가 연구수행당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였는지, 연구자의 표현 및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분석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임의로 추가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연구결과의 주제가 제대로 참여자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제나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의 초안을 연구 교사에게 보여주고 잘못 기술된 부분, 잘못 해석된 부분, 잘 된 부분, 왜곡된 부분,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서 비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해석한 자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내부자적 관점으로 내부세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동료 검증은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가지는 관점이 편협 되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연구참여자들의 세계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변정현 외, 2007). 먼저 연구자가 1차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에 대해 동료 분석자가 2차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여 내용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인 감수자로부터 분석된 자료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하였다. 분석 자료에 참여해준 이는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동료로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의 분석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또한 서로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절하였으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검증과 조언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집중적인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습성격유형과 학습몰입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습성격유형별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연구참여자와의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

1) 학습몰입 변수별 상관관계

<표 2>는 학습몰입 변수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변수 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상관계수는 최저 .572 이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의식의 상실(.839), 과제에 대한 집중(.787), 통제감(.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습몰입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도전과 능력의 조화	1								
2.명확한 목표	.679**	1							
3.구체적 피드백	.748**	.676**	1						
4.과제에 대한 집중	.787**	.742**	.719**	1					
5.통제감	.649**	.698**	.705**	.759**	1				
6.행위와 의식의 통합	.764**	.669**	.715**	.772**	.679**	1			
7.자의식의 상실	.649**	.715**	.660**	.736**	.839**	.700**	1		
8.시간감각의 왜곡	.703**	.572**	.610**	.682**	.663**	.709**	.708**	1	
9.자기 목적적 경험	.719**	.715**	.701**	.746**	.755**	.666**	.766**	.704**	1

** p<.01

2)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 평균

<표 3>은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평균을 나타낸다. 일원분산분석을 위해서는 정규성이 가정되어야 한다(김재철, 2008; 성태제, 2011). “중”삼극한정리에 의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n>30$)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분포가 성립되지만(성태제, 2005), 학습성격유형별 집단은 표본수가 적으므로 정규성 검증을 실시 후 정규성이 가정된 집단만을 활용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학습몰입 평균비교

학습성격유형	N	M	SD	F	정규성 검증	사후검증
행동(a)	7	2.91	0.89		.20	
규범(b)	8	3.23	0.19		.17	
이상(c)	7	3.10	0.48		.20	
행동규범(d)	13	3.40	0.39		.16	
규범이상(e)	8	3.35	0.47	2.478*	.13	b<g
행동규범탐구(f)	7	3.60	0.93		.14	
행동규범이상(g)	38	3.74	0.62		-	
행동탐구이상(h)	10	3.30	0.70		.20	
규범탐구이상(i)	12	3.06	0.98		.20	
평균	110	3.42	0.70			

* p<.05

<표 3>은 학습성격유형별로 학습몰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3.42의 평균을 보였으며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행동규범이상형(3.74), 행동규범탐구형(3.60)이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규범탐구이상형(3.06), 행동형(2.91)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세부변인별로 살펴봐도 행동규범탐구형과 행동규범이상형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주었으며, 행동형, 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이 대체로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습몰입 요인별로는 과제에 대한 집중요인, 시간감각의 왜곡요인, 자기 목적적 경험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2. 초등학생의 몰입행동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땀 흘리고 재미있어 시간가는 줄 모르는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활동에 보다 쉽게 몰입하며 몰입의 결과로 주어질 보상과 성과를 소망할 때 더 몰입하는 반면 부모나 교사의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는 몰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동들이 몰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흥미와 호기심, 더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이었으며 자신이 몰입하였음을 인식할 때 이들은 머리도 마음도 즐거운 것을 경험하였다. 아래에서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FG, 개인면담은 II로 제시하였다.

1) 초등학생이 느끼는 몰입의 일반적 특성

땀 흘리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활동이 좋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인 학습상황에서 너무 재미있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는 체육이 좋아, 축구 시합 할 때 땀도 흘리고 막 뛰고 재밌고 시합에서 이기면 기분 좋고 체육시간에 축구경기하면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도 빨리 가잖아(경호, 4월 30일, II).

수학문제를 풀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친구들과하고 팽따먹기 게임을 하면서 수학배수로 했어요. 1,2,3숫자를 가지고 1을 가지면 1의 배수만큼, 2를 가지면 2의 배수만큼.....중략 정말 재밌었어요. 더 하고 싶어지고 재밌는 놀이처럼 게임을 하니깐 공부가 잘 됐어요(정인, 4월 17일, FG).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몰입하게 한다.

초등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이나 과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타인, 교사나 부모의 관심과 인정이 주어지는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며 더 몰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몰입경험에 있어서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하고 선생님이 잘한다고 나보고 해보라고 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고 공부할 때도 더 잘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 성취감도 있고요(수민, 4월 24일, FG).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깐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요(서현, 4월 24일, FG).

성과와 칭찬을 소망하며 열심히 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칭찬과 보상을 얻고자 노력하고, 성취했을 때 즐거움과 자신감을 가지며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그에 따른 칭찬과 보상을 받았을 때 몰입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열심히 했으니깐 당연히 상을 받을꺼라 생각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공부도 잘되고 기분도 좋고 힘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당연히 상을 받아야지 즐겁지 않나요(채민, 4월 19일, FG).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가며 몰입의 과정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마냥 어리지 않다.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서 자신감도 경험한다. 그들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몰입경험을 삶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유도할 때 00만큼은 내가 이겨야겠다고 목표를 잡고 하면 경기에 몰입도 되고 자신감도 있고 이번에 중간고사도 이 과목만큼은 내가 백점을 맞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집중도 더 잘되고 공부할 맛이 나서 더 기분이 좋아요.(승환, 4월 19일, FG).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면서 점점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내가 잡은 목표만큼 성적이 나오면 기분이 아주 좋죠 목표가 딱 있으니깐 집중도 잘되고요(홍주, 4월 19일, FG).

흥미와 호기심으로 더 몰입해 간다.

흥미와 호기심은 창의적인 업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앨리트 마이컬슨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누

군가 왜 그 일을 했느냐고 묻자. “너무 재미있었거든!” 이러한 일화가 주는 의미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책이랑 공책을 보여주면서) 캐릭터 뿐이죠.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캐릭터를 그려서 말풍선으로 사회공부를 했더니 재미도 있었고 캐릭터 하면서 눈치를 안 봐서 엄마한테 보여 줬어여 오~하던데요 눈치를 안 봐서 집중해서 몰입하고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서진, 4월 12일, FG).

나는 수학이 좋아요 다른 애들은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문제를 풀 때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고 수학문제도 만들어 보고 그냥 재밌고 좋아서 더 많이 하나봐요(진희, 4월 12일, II).

머리도 마음도 즐거워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일상생활 및 학습상황에서 몰입하다 보니 머리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몰입 경험은 그 순간에 이들의 기분을 한결 좋게 해주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어떤 활동에서 몰입 경험은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안겨준다. 이처럼 몰입 경험은 그들의 성장에 바람직한 영향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몰입을 하고 계속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니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즐거워하고 있으니깐 집중하면서 몰입도 하고 머리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예진, 4월 30일, II).

몰입을 자꾸 생각하니깐 몰입도 잘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몰입은 즐겁고 행복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은미, 4월 30일, II).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몰입을 채찍질한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왜 아동들은 하기 싫다는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몰입경험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과 과제수행활동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맛보며,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꾸준한 성장의 길을 가며 스스로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하는데 몰입이 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해야하고 어차피 한다면 몰입해서 잘하고 싶어요...그럼 힘도 나고 즐겁고...아무튼 좋잖아요(지원, 4월 26일, FG).

시험을 쳤는데 몰입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공부하면서 몰입하면 시험도 즐겁고 공부도 좋을 것 같아요(민수, 4월 24일, FG).

부모의 기대와 부담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경험의 대부분은 공부와 성적이 연결되어 부모나 교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쳐 과제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행동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기대와 관심은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작용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부담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빠가 수학점수 낮으면 엄마 닳아서 수학을 못한다고 맨날 놀리거든요. 수학을 못하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맨날 수학점수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그래서 걱정돼요(서은, 4월 16일, FG).

공부할 때 나도 열심히 하고 100점 맞고 싶죠 근데, 엄마가 자꾸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무조건 100점 맞으라고 하니깐 집중도 안 되고 더 하기 싫어진다니깐요(민구, 4월 30일, II).

2)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별 몰입의 특성

규범형: 계획과 완수가 습관이 되다.

규범형 아동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 책임과 성실한 태도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책임과 성실은 규범형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계획표대로 하면” “습관이 돼서” 이들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학습을 해나가면서 재미를 느낀다.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계획표대로 하면 더 재밌고 몰입하는 것 같기도 해요(진호, 4월19일, FG).

습관이 돼서 집에 오면 학교홈피 확인하고 숙제랑 준비물 챙기고 학원갈 시간되면 학원가고 책 읽고, 그래서 그런지 더 집중도 되고요(현우, 4월 20일, II).

탐구형: 호기심이 도전을 가져온다.

탐구형 아동들은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희열을 느끼며, 학교나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한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호기심으로 새로운 발견과 도전은 탐구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만든 수학문제를 다른 친구들이 풀어 보게 해서 못 풀면 회열을 느껴요. 이번에도 내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만든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다른 애들이 모르는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애들이 와~하죠 나만의 문제를 만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유민, 4월 12일, FG).

규범탐구형: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지?

규범탐구형 아동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일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만들기는 규범탐구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아이들은 아주 기분이 좋고 이를 위해 또 무언가를 만든다.

종이 같은거나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 할 때 다 만들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만들기 시험이 있다면 몰입해서 일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승민, 4월 13일, FG).

강변에서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좋았어요. 만들기 할 때는 정말 아무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요(순민, 4월 24일, FG).

행동규범탐구형: 최선을 향하여 나아간다.

행동규범탐구형 아동들은 자신의 과제수행에서 자신이 1등과 최고가 되는 조건을 목표로 했을 때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고는 행동규범탐구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며 더 잘하고 싶은 성취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하는데 몰입해서 100점 맞으면 엄마가 기분 좋게 말하는데 운동은 1등해도 그냥 그래요. 나는 공부도 운동도 최고가 좋아요(도윤, 4월 30일, II).

행동규범이상형: 목표가 나를 몰입하게 한다.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목표는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올백을 목표로” 정신없이 몰입하여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올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도 되고...그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잘 못해도 다음

에 잘하면 되잖아요(해인, 4월 12일, FG).

행동탐구이상형: 도전하는 내가 뿌듯하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형으로 도전과 목표설정은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배드민턴 칠 때”,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힘든 것도 잊고 몰입한다.

배드민턴 칠 때 힘든 것도 까먹고 이겨야겠다고 마음먹고 경기에 몰입해서 이기면 뿌듯하고, 공부할 때도 목표를 잡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몰입했다니 더 잘됐지 뭐예요(규진, 4월 19일, FG).

V.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습몰입도의 차이와 몰입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몰입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학생들의 몰입경험과 관련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3.42의 평균을 보였으며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행동규범이상(3.74), 행동규범탐구(3.60)가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행동규범(3.40), 규범이상(3.35), 행동탐구이상(3.30), 규범(3.23), 이상(3.10), 규범탐구이상(3.06), 행동(2.91)순으로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학습몰입 요인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도전과 능력의 조화요인, 명확한 목표요인, 구체적인 피드백요인, 통제감요인, 행위와 의식의 통합요인은 $p<.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과제에 대한 집중요인, 시간감각의 왜곡요인, 자기 목적적 경험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학습상황에서 몰입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시기 대부분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아직은 구체적 사물과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재미있어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Piaget에 의하면 활동은 지능의 성장에 지극히 중요하며 아동은 행위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는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수업방법이 신체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활동성'을 나타낼 때 수업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활동에 몰입한다(정혜영 등, 2004)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변세계를 탐색하며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아동들은 스스로 학습하며 학습활동의 즐거움과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몰입 순간에 여러 가지 유쾌한 긍정 정서를 느꼈다. 이들의 몰입경험에 수반된 정서는 '즐거움', '행복함', '만족감', '성취감' 등 긍정적이고 유쾌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은 어떤 활동에서 몰입경험을 느낄 때 그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이끌림과 자신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은 과제수행과 활동과정에서 매순간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알아차릴 때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에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경험이 성격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에 초등학교 시기는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몰입경험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성취감과 즐거움에서 아동들은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성격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체적 경험을 할 때, 직접 체험할 때 더 강한 몰입을 경험한다는 점, 그러한 몰입 과정에서 유쾌한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러한 알아차림이 자신이 앞으로 몰입경험을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 자신을 안내하고 이끄는 경험이 되어준다고 보고하였다는 점은 초등학생들을 교육하고 조력하는 성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들의 몰입경험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성적은 아동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수단이자 경쟁의 통로가 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만족에 큰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적인 성취는 교사와 부모, 또래관계에서의 신뢰를 유발하는 지표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기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이들은 발달과정에서 교사나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모범생이 되는 것 등 외부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민감한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몰입경험에서 교사나 부모,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가장 몰입한다고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에 있어서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면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에게 교사나 부모 등 의미 있는 성인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나 관심은 아동에게 내적인 동기와 몰입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초등학교 아동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분야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자주 몰입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지식이나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이다(Nichols, 1965; 김영천, 1998에서 재인용). 이처럼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지적 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활동에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을 자주 맛보게 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수행에 대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과제수행의 향상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특정 과목에서 몰입하기가 힘들며 심지어 끔찍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동들에게서 더 부정적 반응이 많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동들마다 제각각 흥미 있는 과목과 아동의 만족도와 몰입감을 높이는 활동을 파악하고, 아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흥미와 관심분야에서 자주 몰입을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이러한 몰입경험은 또 다른 활동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가지는 다양한 관심을 스스로가 탐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과정에서 집중과 통제, 그리고 적극적 참여의 측면에서 몰입을 생각해볼 때, 몰입 경험이 학습시간 단축 및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켜주며,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향상이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Hoffman & Novak, 1996; Skadberg & Kimmel, 2004).

다섯째, 학습성격유형별로 상이한 학습몰입 특성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이 아동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각 개인 학습자 모두가 자신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적합한 학습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준 행동규범탐구형과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의 몰입행동은 질적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에 집중하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주며, 자신의 활동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지며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행동양상이 학습상황에서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강한 욕구와 내적 동기가 영향을 미쳐 이들의 몰입수준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고등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이해정도를 점검하고 능력과 난이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다는 이재신(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행동규범탐구형 아동들은 행동형이나 규범형에 비하여 성취욕

을 강하게 드러내고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목표지향적인 성격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승부욕이 강한 만큼 자신의 과제수행에서 지나친 경쟁의식과 열등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과제수행 과정에서 몰입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과제수행을 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능력만큼 학습수행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과제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분석 결과 탐구형 아동들은 가장 많은 몰입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기심과 흥미는 몰입경험에 선행되어 일어나는 핵심 변인이다(Csikszentmihalyi, 1996;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호기심과 흥미는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Deci & Ryan, 1985; Schiefele, 1991)는 점은 탐구형이 새로운 지식습득과 호기심으로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 충분한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끝도 없이 질문을 퍼부어대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이 쓸데 없는 질문을 한다며 면박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몰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북돋아주어 자신의 과제수행에 대한 확신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적 분석결과 낮은 몰입수준을 보인 행동형과 행동이상형 아동들은 질적연구에서도 교실에서의 학습활동에 몰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와 놀이를 통한 활동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면서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기택(2001)은 온라인 학습에서 성격의 외향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외향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보다 몰입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적극적, 활동적이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간섭이나 개입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학습자의 외향적 성격이 온라인 학습에 몰두하는 동안 즐거움, 호기심을 느끼고 시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감성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려할 때, 외향성을 가진 행동형과 행동이상형 아동들을 위해 그 성격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상황에서 몰입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규범형 아동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 책임과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특성으로 학교의 교실상황에서 가장 많이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몰입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몰입하위척도에서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규범탐구형 아동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이 “만들기 시험이 있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텐데”라고 보고한 예처럼 초등학교 아동들이 흡수하는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단순히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에 관심을 두어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하여 직접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실제 활동상황에서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등 다각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히 자신을 몰입함으로써 자아를 더욱 강화시키고 공부하는 더욱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은 관심 있는 활동에서의 도전과 성취감을 통해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형으로 학업에 대한 성취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일에 전념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며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성취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과제수행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질적 연구에서는 몰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습성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몰입경험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교사, 부모, 또래관계에서 맺어지는 신뢰감과 친밀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이나 과제에 접근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호적 관계에서 오는 인정과 관심, 칭찬, 보상은 이들에게 몰입을 경험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통적인 경험 특성으로서 대부분의 아동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들의 학습 관련 성격 특성에 따른 몰입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을 촉진해 준다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몰입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 장면에서 아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활동의 선정과 조직에 관련된 방법적인 절차와 지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표집대상을 K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으로 표집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힘들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계층과 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몰입을 아동들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연구방법으로 탐구하였다. 이들이 몰입할 때의 생생한 모습을 몰입 순간의 내적 경험과 연결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방법이 병행되어 아동들이 실제 수업에서 몰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생활 전반에서 이들이 몰입하는 과정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동들이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더 의미 있는 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관점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부모나 교사의 관점에서 이들이 바라본 아동들의 몰입 경험을 연구한다면 이와는 상이한 양상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여러 주체의 관점과 경험의 상호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미 (2003).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및 여가만족의 차이비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계보경, 김영수 (2008). 증강현실 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 학습몰입, 학습효과의 관계규명. **교육공학연구**, 24(4), 193-223.
- 권동택, 문지현 (2010). 내러티브 학습경험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 연구**, 17(11), 25-46.
- 권선방, 천성문, 방원모, 이영순 (2009). Keirse이론에 의한 중·고등학생용 학습유형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0(3), 1501-1519.
- 김만권, 한종철 (2001). **학습문제 전문가 자료집**. 서울: 연우심리연구소.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신일 (2003). **교육사회학 제3판**.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천 (2010). **질적연구방법론Ⅲ**.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호 (2002).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재철 (2008).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최신 실용통계학**. 학지사.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민상기, 나승일 (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몰입과 학급풍토의 관계. **인적자원개발**, 39(3), 45-68.
- 문지현, 권동택 (2010). 내러티브 학습 경험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17(1), 25-46.
- 박성익, 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1), 93-115.
- 박성희 (2011). **생애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 도서출판: 원미사.
- 박아청 (2001). **성격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박종욱 (2010). 초등학생의 학습몰입과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박형근 (2009). 동기요인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송유나, 최인수 (2008). 아동의 성격유형과 창의적 특성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간의 관계. **인간발**

달연구, 15(1), 46-71.

석임복 (2007). 학습몰입의 구조 : 척도, 성격, 조건, 관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성태제 (2011). **알기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신영애 (2006). 성격유형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3, 25-44.

신윤섭 (2008). 초등학교의 반성 중심 학습조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신재환 (2009). 학습자 성격유형별 집단 구성에 따른 초등학교의 온라인 토론 참여 양상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2(2), 27-47.

이기택 (2001). 정상학습 프로그램이 몰입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이경아, 유나현, 이은경, 전주연, 이기학 (2004). 학습성격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107-121.

이은주 (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이소희 (2006). 초등학교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몰입 정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이숙정 (2010). 초등학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학생 관계와 학급풍토 및 학습몰입의 경로 분석. **초등교육연구**, 23(4), 207-227.

이재신 (2009). 고등학교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77-295.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임경희 (2008). 학습자의 성격유형이 학습양식과 수업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1(1), 1-18.

임현화 (2010). 수업에 몰입하는 아동의 경험과 교사의 수업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초등 과학수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창재 (1994). 학습양식을 형성하는 가정환경의 과정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정수진 (2008). 청소년의 성취목표 및 동기유형과 학습몰입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1(1), 37-52.

정혜영, 조연순, 정광순, 박주연 (2004). 초등학교 아동이 수업에 몰입하는 맥락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7(2), 181-206.

홍기철 (2009). 수업변인과 학습몰입과의 관계 연구. **사고개발**, 5(1), 19-44.

황운구 (2007). 학습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Corrine Glesn./안혜준 역 (2008).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E,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프레스.
- Csikszentmihalyi, M./최인수 역 (2011).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울림.
- Csikszentmihalyi, M./이희재 (2011). *Finding Flow*. 몰입의 즐거움. 해냄.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3). *Talented teenagers: A longitudinal study of their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 Schneider, B. L.(2000)./이희재 역 (2003). *Becoming Adults*. 어른이 되는 것은. 서울: 해냄.
- Csikszentmihalyi, M./노혜숙 역 (1996). *CREATIVITY :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창의성의 즐거움. 북로드.
- Csikszentmihalyi, M./임석원 역 (2011). *Flow-Der Weg Zum Gluck*. 미스터 몰입과의 대화. 위즈덤하우스.
- Golay, K. (1982).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s*. Fullerton, CA: MANAS-SYSTEMS.
- Grasha, A. F., & Reichmann, R. E. (1974). A rational approach to developing and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a student learning style scales instrument. *Journal of Psychology*.
- Hektner, J. M.(1996). *Exploring Optimal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 Hoffman, D. L. & Novak, T. P. (1997). *Measuring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working paper,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 Jackson, S. A. & Marsh, H.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 17-35.
- J. Amos Hatch./진영은 역 (2008).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 Keirse, D & Bates, M./정혜경 역 (2005). 나를 제대로 아는 법 남을 확실히 아는 법. 행복한 마음.
- Kilman, R. H., & Taylor, V. (1976). A contingency approach to laboratory learning: Psychological types versus experimental norms. *Human Relations*. 27(9), 891-909.
- Krimsky, J. S. (1982).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tching and mismatching fourth grade students with their learning style performance for the environmental element of light and their subsequent reading speed and accuracy sco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 Lawrence, G. D. (1984). A synthesis of learning style research involving the MBTI.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8, 2-15.
- Lrving Seidman./박혜준, 이승연 역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Third Edition)*.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 Lynch, P. K. (1984).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achievement, attendance, and the individual learning style time preferences of eleventh and twelfth grade students identified as initial for chronic truants in a suburban New York school distri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 Marsh, H. W., & Jackson, S. A. (1999). Flow experience in sport: construct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state and trait respon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4), 343-371.
- Massimini, F., Csikszentmihalyi, M., & Carli, M. (1987). The monitoring of optimal experience: A tool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545-549.
- Mayers, P. (1978). *Flow in Adolescence and its Relation to the School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McCaulley, M. H. (1977). *The myers longitudinal medical study(Monograph II)*.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ype Inc.
- Novak, T. P., Hoffman, D. L., & Yung, U. F. (1998). *Measuring the flow construct in online environment: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working paper. Vanderbilt University.
- Pask, G. (1976). *Styles and Strategies of Learn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6.
- Rathunde, K. (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family Context*.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efele, U. & Csikszentmihalyi, M. (1994). Motivation and ability as factors in mathematics experience and achievement.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6(2), 163-181.
- Skadberg. T. X., & Kimmel, J. R. (2004). Visitors' flow experience while browsing a web Site: Its measurement, contributing factors and consequ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 403-422.
- Smith, A., Irely, R., & McCaulley, M. H. (1973). Self-paced instruction and college students's personality. *Engineering Education*, 63(6), 435-440.
- Webster, J., Trevino, L. K., & Ryan, L. (1993). 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 human 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 in Human Behavior*, 9(4), Winter, 411-426.
- Weinberg, F. H. (198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modality preference and mode of presentation on the instruction of arithmetic concepts to third grade underachiev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 Wheeler, R. (1980). *An Alternative to Failure: Teaching Reading According to Students; Perceptual Strength*. Kappa Delta Pi Record, 59-63.
- Wong, M. M., & Csikszentmihalyi, M. (1991).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th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59(3), 539-574.
- Woodfolk, A. E. (2001). *Educational Psychology*(8th Ed.). MA: A Pearson Education Company.

* 논문접수 2012년 10월 22일 / 1차 심사 2012년 12월 5일 / 2차 심사 2013년 2월 13일 / 게재승인 2013년 3월 19일

* 이운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중학생의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생각 및 시도와 소외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집단상담 소감문 분석을 통한 집단 치료적 요인 분석' 등이 있다.

* E-mail: happyhelper@hanmail.net

* 지연정: 구미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 E-mail: jiyj92@hanmail.net

Abstra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Style on the of Learning Flow

Lee, Yoon-joo*

Ji, Yeo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its effect of learning style learning flow the means depending. The first elementary school 5th grade 120 people targeted learning style, check the of learning flow, learning style the difference between sub scale based on the of learning flow, second, the 24 people targeted focus groups and interviews the learning style and learning flow commitment have collected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is Constant Comparison Method analysis of iterative procedure was presented as the result of a research Study and interpretation are: first, when you compare the overall average learning style and learning flow. actual-spontaneous-routine-conceptual-specific learner of the learning flow sphere ride clear goal of sub factors, and actual-spontaneous-routine-conceptual-global learner of the feedback of the ritual in the relatively higher average integration factors. second, in the context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learning flow elements of the child's flow experience, depending on the learning style of natur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y a variety of unique aspects, and note the difference. third, the flow experience of the children in the enjoyment, happiness, accomplishment, and s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arent or teacher, couple, attention and recognition from their peers in an environment that is more often given to an flow experience. fourth, the children were the most flow experience at school. praise and reward the more flow experience in a given activity. fifth, children with physical activity and interest, a sense of pleasure and accomplishment through the activities you are interested in, when there was flow experience. sixth, more flow when flow. children involved in the study, and while I think the flow focus on interview techniques better flow experience. as such, information on this study, focusing on counselling and education, and discuss the implication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of the scene is limited and suggest the need for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Learning Style, Learning Flow, Qualitative Research, Elementary Students

